

완암(浣巖) 정내교(鄭來僑) 산문 연구*

- 가난한 중인이 본 '욕망의 시대' -

조하늘**

- I. 문제 제기
- II. 정내교 산문의 형성 배경
- III. 정내교 산문의 지향
 1. 가난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
 2. 여향인의 자수(自守)와 시어(施與) 조명
 3. 지배층의 탐욕 비판
- IV. 남은 과제

<국문초록>

본고는 정내교(鄭來僑)의 산문 전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이다. 신분을 비롯한 개인적 배경과 18세기 전반기의 역사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의 산문에 접근했다. 정내교는 가난한 중인이면서 벌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대는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증대되는 동시에 지배층의 극심한 부침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이런 배경 위에서 정내교는 자신이 겪은 '시와 생계의 갈등'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에 '졸박(拙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부와 성공보다 나은 가치로 제시했다. 경제적·신분적 약조건 속에서도 정신적 가치를 견지한 여향인을 조명했으며, 이런 자세가 경제적·신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조로 확장되는 것으로 형상화했다. 또한 지배층의 탐욕이 그들의 자멸을 초래할 뿐 아니라

* 본고는 제17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2024.11.7.~2024.11.9.)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이재경 선생님과 채송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피지배층에 대한 착취를 유발한다는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정내교의 산문은 가난한 중인의 시각에서 ‘욕망의 시대’에 반발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내교의 산문이 중인문학사에서 갖는 의의는 현실을 재현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적 문제의 원인을 성찰하고 ‘욕망의 절제’라는 대안적 가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핵심어 : 정내교, 중인, 18세기,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 중인문학, 여향문학

1. 문제 제기

본고의 연구 대상은 정내교(鄭來僑, 1681~1757)의 문집인 『완암집』(浣巖集) 소재 산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신분을 비롯한 정내교의 개인사적 배경과 18세기 전반기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런 조건 속에서 정내교가 어떤 문제의식을 형성했으며 그 문제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켰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정내교에 대한 선행연구는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정내교 문학 전반의 특징을 밝히려는 시도들이다.¹⁾ 이 연구들은 민(民)의 현실을 소재로 삼은 시, 그리고 중인과 평민을 입전(立傳)한 전을 중심으로 정내교의 문학세계를 재구성했다. 둘째는 시 연구로, 정내교의 시를 단독으로 논한 연구²⁾도 있고 중인문학 혹은 진시(眞詩)의 전개 속에서 조명한 연구³⁾도 있

-
- 1) 장원철, 『朝鮮後期 文學思想의 展開와 天機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2, 96~110면 및 138~147면; 이상진, 『朝鮮後期 閭巷文學의 展開過程과 文藝意識: 天機論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02~150면; 이형주, 『浣巖 鄭來僑의 文學 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손병국, 『浣巖 鄭來僑論』, 이종찬·김갑기 편, 『조선후기한시작가론』 1, 이회문화사, 1998, 433~458면; 최연희, 『鄭來僑 文學 研究』,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9, 169~176면.
 - 2) 김성희, 『鄭來僑 詩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문성배, 『浣巖 鄭來僑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142~158면; 차용주, 『한국위향문학작가연구』, 경인문화사, 2003, 127~157면.
 - 3) 강명관, 『조선후기 여향문학 연구』, 장비, 1997, 261~266면; 김형술, 『白巖詩壇의 眞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5~16면 및 177~179면. 한편, 학계에서는 ‘중인문학’과 ‘여

다. 셋째는 전 연구이다. 『김성기전』(金聖基傳)과 『화사김명국전』(畫師金鳴國傳)을 예인전(藝人傳)의 대표작으로서 분석한 연구⁴⁾가 있으며, 『임준원전』(林俊元傳)을 유험전(遊俠傳)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한 연구⁵⁾도 있다. 정내교의 전 전반이 ‘중인 작가의 전’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조명되기도 했다.⁶⁾ 이상의 연구들에서 정내교는 당대의 구조적 모순을 예리하게 인식하여 시화(詩化)했으며 신분에 의해 차별받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능력을 조명한 사회비판적 작가로 이해되었다. 이 밖에 사대부들과의 관계, 여항인에 대한 교육, 시조사(時調史)에서의 위상 등 특정한 활동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⁷⁾ 비교적 근래에는 묘문(墓文)에 관한 작품론도 나왔다.⁸⁾

선행연구는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정내교의 가계, 생애와 교유, 사대부들과의 관계 등 중요한 전기적 사실들을 규명했다.⁹⁾ 둘째, 구조적 모순

항문학’ 혹은 ‘위항문학’이라는 용어를 혼용해 왔다. 조선후기에 ‘여항인’ 혹은 ‘위항인’은 중인 층뿐 아니라 평민과 천민까지 포괄하는 말로 쓰였다(윤제민, 앞의 책, 30면 참조). 본고에서는 작가층의 신분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중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며, 정내교와 여타 중인들 역시 ‘여항인’이 아니라 ‘중인’이라고 칭할 것이다. 다만 중인과 평민, 천민을 포괄해 부를 때는 ‘여항인’이라는 말을 쓸 것이다.

- 4) 이경수, 『委巷藝術人の 形象化와 鄭來僑의 『傳』』, 姜漢永教授 古稀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韓國 관소리 · 古典文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3, 690~714면; 박희병, 『조선 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a, 367~373면.
- 5) 박희병, 『조선 후기 민간의 유험상상과 유험전의 성립』,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b, 305~306면; 김경희, 『『임준원전(林俊元傳)』에 나타난 정내교의 작가 의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5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a, 5~31면.
- 6) 윤제민, 『중인(中人) ‘전(傳)’의 계층적 성격』, 『한국한문학회』 12, 한국한문학회, 1989, 93면 및 97면; 정병호, 『朝鮮後期 中人層의 傳에 나타난 人物形象과 그 意味』, 『한국학논집』 2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9, 195~230면; 김용남, 『중인 작가의 ‘전’에 나타난 인물유형』, 『개신어문연구』 17, 개신어문학회, 2000, 210~230면, 이서영, 『천기론(天機論)을 기반으로 한 중인문학』,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6,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126~127면.
- 7) 채환중, 『조선 후기 위항문학과 사대부·신정하·신방과 흥세대·정내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15, 한국문화회, 1994, 229~263면; 윤지훈, 『朝鮮後期 閭巷人の 教育活動과 그 成果: 浣巖 鄭來僑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253~280면; 조지형, 『18세기 時調史의 흐름과 浣巖 鄭來僑의 위상』, 『민족문화연구』 6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423~452면.
- 8) 강혜경, 『浣巖 鄭來僑 墓文의 特性 考察 - <金澤甫墓誌銘>과 <弟妻孺人邊氏墓誌>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4, 한민족어문학회, 2016, 319~349면; 김경희, 『정내교의 ‘김택보 만취 묘지명(金澤甫 萬取 墓誌銘)’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고찰』, 『감성연구』 1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b, 179~213면.
- 9) 김성희, 앞의 논문, 5~12면; 이형주, 앞의 논문, 7~11면; 손병국, 앞의 책, 435~442면.

에 대한 예리한 인식이, 이전 중인 시인들의 시에 비해 정내교의 시가 거둔 중요한 성취임을 논증했다.¹⁰⁾ 셋째, 정내교의 전에 관한 논의가 축적되었다. 이 논의들은 정내교가 차별받는 신분의 일원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하여, 자기 동류(同類)의 삶과 그들이 실현한 가치를 조명했음을 밝혔다.¹¹⁾ 넷째, 대개의 연구가 시와 전에 초점을 맞추어 온 가운데, 묘문에 관한 작품론은 정내교가 지닌 산문가의 면모를 조명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반면 남은 과제도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정내교의 시와 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전 이외의 산문은 참고 자료로만 거론했다. 그런데 정내교의 산문은 이 이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작품들에는, 시와 전만 볼 때는 간취(看取)하기 어려운 정내교의 또 다른 면모가 담겨 있다. 세태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시대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한 사색가의 면모가 그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정내교의 산문 전반을 본격적으로 연구한다. 『완암집』에 실려 있는 산문은 서(序) 4편, 기(記) 6편, 제발(題跋) 4편, 전 6편, 잡저(雜著) 3편, 잠(箴)·명(銘)·찬(贊) 총 8편, 상량문 2편, 제문 6편, 애사 5편, 묘문 7편이다. 본고는 신분을 비롯한 정내교의 개인사적 배경과 당대의 역사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작품들에 접근할 것이다. 정내교의 개인사적 배경에는 신분, 경제적 배경 그리고 교유가 포함된다. 당대의 역사적 배경이란 18세기 전반기 서울의 사회사적·정치사적 추이를 말한다. 본고는 이 중 정내교의 경제적 배경과 당대의 사회사적 배경에 특히 주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요소들도 정내교의 산문 세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볼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정내교의 산문을 연구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정내교의 산문 전반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사의 공백을 보충할 수 있다. 둘째, 정내교의 산문을 ‘중인’이라는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하지 않고,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정내교의 작품이 다른 중인 작가들에 비해 어떤 점에서 특징적인지 알아차릴

10) 강명관, 앞의 책, 같은 곳.

11) 정내교의 전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3장 제2절에서 자세히 논한다.

수 있으며, 왜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 정내교의 시와 전들을 한층 정교하게 재해석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정내교 산문의 형성 배경을 재구성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면서 탐구를 심화할 것이다. 정내교의 산문에서는 크게 보아 세 개의 시선이 나타난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동료인 여향인들을 보는 시선이며, 마지막 하나는 지배층을 보는 시선이다. 이 세 층위를 차례로 살펴봄에 따라 정내교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정내교 산문의 형성 배경

이 장에서는 정내교 산문의 형성 배경을 ‘개인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개인적 배경부터 살펴보면, 신분, 경제적 조건 그리고 교유를 차례로 거론한다.

정내교는 세력이 미미한 역관 가문 출신이다.¹²⁾ 경제적인 면에서는 빈곤한 편이었다. 정내교에게 시를 가르친 홍세태(洪世泰)는 그가 “여향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없고 또 혹 아는 사람도 그를 이끌어 발탁해 주려 하지 않으므로 곤궁하게 지내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다”¹³⁾라고 했다. 홍세태의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은 정내교의 행적을 통해 입증된다. 정내교는 친하게 지내던 신정하(申靖夏)에게 생계를 위해 군직을 청탁한 적이 있었으며¹⁴⁾ 신정하 사후에는 호구를 위해 서울을 떠나 떠돌았

12) 강명관, 앞의 책, 148면 참조.

13) “蓋其人奇士，顧以其生閭巷之間，世無知者，而其或知者亦不肯引而拔之。故因窮飢寒，抱書坐寒簷下，伊吾竟日，人皆笑其迂拙。”(洪世泰, 『送鄭季通序』, 『柳下集』 권9, 韓國文集叢刊 167, 474면)

14) “從前每言潤卿爲人，則遠勝滄浪，今而始知不然也。彼滄浪者爲人，雖有輕佻之病，然亦能株守一室讀書，忍得三十年寒餓。潤卿吾輩所期待，不如滄浪之草草，而反不能滄浪之所能，何也？潤卿形勢，吾亦知其在十分難支之境，而至於醫譯，猶或可也。如韋韋附注之任，非特難得，亦將不堪，則乃是非分之物也。以一不忍而輒生意於非分之求者，豈是所望於平日從吾遊者耶？”(申靖夏, 『答昉』, 『怨菴集』 권7, 韓國文集叢刊 197, 302면)

다.¹⁵⁾ 만년에도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62세 때인 1742년에는 식구들이 굶주린 탓에 타고 다니던 말을 팔았으며, 73세 때인 1753년에는 아들의 혼사가 있었음에도 돈이 없어서 물자를 넉넉히 마련하지 못했다.¹⁶⁾

정내교의 교유는 신분과 경제적 조건에 비해 덜 주목받았으나 그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정내교는 중인들과 교분이 두터웠을 뿐 아니라¹⁷⁾ 별열과도 관계가 깊었다. 이 관계는 정내교의 문학적 재능에 힘입은 바 컸다. 정내교는 14세 때인 1694년에 신완(申琬)을 만났는데, 신완은 정내교가 자기 아들 신정하에게 시문을 배우도록 했다.¹⁸⁾ 이때부터 정내교와 신정하는 많은 시를 주고받았다. 정내교가 백악시단(白岳詩壇)에 들어간 것도 이 교분을 통해서였다.¹⁹⁾

별열과의 교류는 그들의 자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신정하는 세상을 떠나면서 정내교에게 아들 신호(申晫)의 교육을 맡겼다.²⁰⁾ 즉 정내교는 신완-신정하-신호 3대 중 제1대 및 제2대와의 교분을 바탕으로 제3대를 가르쳤다. 김희로(金希魯)-김치만(金致萬)-김종수(金鍾秀), 홍석보(洪錫輔)-홍상한(洪象漢)-홍낙성(洪樂性), 송상기(宋相琦)-송필환(宋必煥)-송재복(宋載福)과도 같은 관계를 맺었다.²¹⁾ 이런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15) “自公之沒，余顯髮種種而糊口於四方矣。然余在京，每造公舊第，見明賓於所謂綠槐檻者，相與論古今文章，依依若前日事。”(鄭來僑, 『申斯文明賓哀辭』,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63면)

16) 『賣馬歎』 및 『兒子以五月初二日改娶，初四日迎婦，用新代舊，愴欣交并。且家事窶甚，無力辦具，聊用一律以志之』, 참조. 이 두 수의 시는 모두 『완암집』 권3에 실려 있다.

17) 정내교는 홍세태에게 소우(少友)로 대우받았다(洪世泰, 앞의 글, 같은 곳 참조). 역관 가문 출신의 학자 이몽리(李夢鯉)에게 글을 가르쳤으며, 가객 김천택(金天澤), 역관 이여방(李汝芳), 의원 이수기(李壽祺), 의원 가문 출신의 시인 김만취(金萬最)와도 친분이 있었다. 정내교와 이몽리의 관계는 『이재연 애사』(李在淵哀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천택과의 교분은 『청구영언서』(靑丘永言序) 및 『김생천택가보서』(金生天澤歌譜序)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여방, 이수기, 김만취와의 교분은 각각 『이여방계첩서』(李汝芳契帖序), 『이경숙명심편발』(李景叔銘心編跋), 『김택묘모지명』(金澤甫墓誌銘)에서 확인된다. 이상의 글들은 『청구영언서』를 제외하면 모두 『완암집』 권4에 실려 있다.

18) “往在甲戌，初謁相國。相國仁壽，豁然樂有。俾從公遊，翰墨之間。”(鄭來僑, 『祭愾菴申公文』,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61면)

19) 김형술, 앞의 논문, 15~16면 참조.

20) “申君明賓，愾菴公胤子也。生十三歲而愾菴公卒，公臨終屬來僑曰：‘爾其善教我兒子，俾克成焉！’顧明賓曰：‘汝其處潤卿以師禮焉！’”(鄭來僑, 『申斯文明賓哀辭』, 앞의 책, 같은 곳)

21) 김희로-김치만-김종수와 의 관계는 『낙제기』(樂與齋記)와 『김이실 자설』(金而實字說)에서 확인된다. 홍석보-홍상한-홍낙성과 의 관계는 『망기제기』(忘機齋記)와 『항제기』(恒齋記)에서 확인된다. 송상기-송필환-송재복과의 관계는 『송사문백순애사』(宋斯文百順哀辭)에서

것은 정내교의 특별한 점이다. 흥세태 역시 사대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정내교만큼 벌열과 가까이 있지는 않았다. 정내교보다 약 60년 뒤에 태어난 이언진(李彦璘)은 벌열의 추장(推獎)을 받지 못했다.²²⁾

다음으로 정내교 산문의 역사적 배경을, 사회사적 배경과 정치사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정내교는 주로 18세기 전반기의 서울에서 활동했다. 이 시기의 사회사적 배경부터 살펴보자. 당시 서울에서는 상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17세기 후반부터 서소문과 남대문 사이에 칠패(七牌) 시장이 형성되었고, 품팔이 노동이 성행했으며, 경강(京江)에서는 운수업이 번성했다.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부(富)를 추구하는 풍조가 형성되었다.²³⁾ 정내교는 여러 작품에 이런 세태를 담았다. 1717년에 지은 「시양제」(示兩弟)에서는 “남들은 모두 닭 울 때 일어나 / 오직 이익 챙기기에 열심”²⁴⁾이라고 말했다. 1737년에 지은 「한양팔영」(漢陽八詠)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받은 거간꾼이 되어 / 어린애들까지 돈 좋은 줄만 안다네”²⁵⁾라고 읊었다.

사회적 성공, 특히 관직에 대한 욕망 역시 증대되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17세기를 거치며 문과 응시자가 대폭 증가했다.²⁶⁾ 늘어나는 급제자 수에 비해 관직 수가 부족했으므로 문과 급제자가 관직을 제수받지 못하는 현상이 초래되었으며, 그 결과 관직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었다.²⁷⁾ ‘끊임없이

확인된다. 이 작품들은 모두 『완암집』 권4에 실려 있다.

- 22) 이상진, 앞의 논문, 107면에서도 정내교가 여타의 여타의 시인과 문사들에 비해 사대부의 세계에 가까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희병, 『저항과 아만』, 돌베개, 2012, 24면에서는 자신을 추장해 준 사대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흥세태와 달리 이언진은 외톨이었다고 했다.
- 23) 17세기 후반 이후 서울의 상업 발달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풍조의 형성에 관해서는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의 생업과 도시 문화』,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165~192면 참조.
- 24) “衆皆雞鳴起, 惟利是藝葵.”(鄭來僑, 『示兩弟』, 『浣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197, 493면) 번역은 허경진 편역, 『정내교·정민교 시선』, 평민사, 2024, 23면을 따르되 일부 수정했다. 이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정내교 시의 번역은 모두 이 책을 따르되 일부 수정한 것이다.
- 25) “弄丸無復行劫, 帶劍誰爲俠豪? 年少半成賈價, 孩童知愛錢刀.”(鄭來僑, 『漢陽八詠』, 『浣巖集』 권2, 韓國文集叢刊 197, 516면)
- 26) 박현순,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2009, 95~116면 참조.
- 27) 문과 급제자의 증가로 인해 관직 수가 부족해졌다는 점은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72~75면 참조. 문과 급제자 수의 과다가 관직을 둘러싼 경쟁을 격화시켰다는 점은 이익(李漢)의 『논봉당』(論朋黨, 『星湖全集』 권45, 韓國文集叢刊 199, 328~330면)에서 확인된다.

나아가기만을 구하고 끝없이 얻기만을 탐내는' 관리에 대한 묘사나,²⁸⁾ 자기 제자인 흥낙성이 “부귀한 관리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어디 가든 명성과 이익 아님이 없”²⁹⁾다는 지적은 이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1721년과 1722년에 걸쳐 신임옥사가 발발했다. 이때 정내교와 가까이 지내던 노론 사대부 중 다수가 가족을 잃거나 귀양을 가거나 은거를 택했다.³⁰⁾ 정내교 자신 또한 술가하여 계룡산 완암곡(浣巖谷)으로 피신했다.³¹⁾ 이후에도 환국이 반복되면서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졌다. 이런 경험은 현달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보신(保身)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지정기』(二知亭記)에서 정내교는 형조판서였던 윤헌주(尹憲柱)가 일찍 사직한 덕분에 정미환국 때 화를 면한 것을 칭찬하며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노자(老子)의 말을 인용했다.³²⁾ 그러나 정내교가 보기에, 제때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명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 패망을 초래하는 사람은 아주 많았다.³³⁾

28) “今有官人者，自其釋褐而仕，仕而至於顯，未嘗有深謀長慮以救時利國，而惟求進之不已，貪得之無厭，及其惡之積而禍之至也。”(鄭來僑, 『雜說』,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57면)

29) “雖然，子安生長於富貴仕宦之家，目覩耳聞，無往而非聲利；起居飲食，無適而非安飽。”(鄭來僑, 『恒齋記』,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50면)

30) 정내교의 교유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성희, 앞의 논문, 6~12면 및 손병국, 앞의 논문, 438~442면이 비교적 자세하다. 이 연구들에서 거론한 정내교 주위 인물 중 신임옥사 때 화를 입은 사람으로는 큰형 김장집(金昌集)을 잃은 김장흠(金昌翕), 위원(渭源)에 유배된 김재로(金在魯), 부친 홍석보(洪錫輔)가 유배된 홍상한(洪象漢) 등이 있다. 본고에서 새로 확인한 인물로는 김희로·김치만·송상기가 있다. 김희로는 형 김재로와 함께 유배되었다가 1725년에 복귀했는데, 『고은당 김공 예사』(高隱堂金公哀辭, 『완암집』 권4)에 의하면 김치만은 이 뒤로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관직을 제수받아도 거부하며 두문불출했다고 한다. 송상기는 신임옥사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 가서 사망했다.

31) “當壬寅忠良之禍，翁非有家世親黨之累，而一朝盡室入雞籠之浣巖，及其時平而後返焉。”(金鍾厚, 『浣巖鄭翁墓誌銘』, 『本庵集』 권8, 韓國文集叢刊 237, 482면)

32) “上之三年夏，刑部尙書尹公累上章乞免，不許。一日，公戒行李將出，子弟以雨止之。公曰：‘吾志決矣。豈可濡滯?’ 卽日去歸于維揚之故廬。(…) 其年七月，時事忽變，朝士竄逐殆盡而公獨免焉。於是識者莫不服其知而歎其勇也。(…) 嗚呼！‘知足不辱，知止不殆’者，是誠老氏之言也。”(鄭來僑, 『二知亭記』,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47면)

33) “夫爲人臣而致卿相之尊，極富貴之榮者，貴在乎知足知止以全其晚節。然而能識此義者自古而蓋寡，在漢惟二疏，薛廣德，南朝陶弘景，唐之李靖，裴度，宋之錢若水，不過是數人爾。自餘貪冒取敗者滔滔皆是，則所謂知足與知止者，非識識君子，其孰能之?”(위의 글, 위의 책, 같은 곳);

종합하자면, 정내교는 가난한 중인이면서 벌벌 가까이에서 살아간 인물이었다. 정내교가 활동한 18세기 전반기의 서울에서는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증폭되는 동시에 지배층의 극심한 부침이 일어나고 있었다. 제1장에서 언급한바 정내교의 세 가지 시선, 곧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 ‘여향인들을 보는 시선’ 그리고 ‘지배층을 보는 시선’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시선을 하나씩 살펴보자.

III. 정내교 산문의 지향

1. 가난에 대한 긍정적 의미 부여

‘가난한 중인’이라는 정내교의 배경은 그 자체로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중인이었기에, 관리가 되어 수입을 얻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대의 관습상 이런 일에 종사하면서 문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정내교는 가난한 문인으로 살기를 택했다. 그러나 두 아우에게 “이 못난 형을 따르지 말고 / 농부 아니면 상공(商工)이 되어라”³⁴⁾라고 말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스스로 택한 가난이라고 해서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런 처지였기에 정내교는 여러 산문 작품에서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규정했으며, 가난으로 인한 고뇌를 표출하기도 하고 가난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³⁵⁾ 이 절에서는 이 중 『증진사송용회서』(贈進士宋用晦序)와 『용존와기』(用存窩記)를 분석한다.

『증진사송용회서』는 서얼 시인 송필위(宋必煒, 자字 용회用晦)에게 증정

“世之汲汲榮塗者，知進而不知退，知得而不知喪，卒至於取敗者皆是也。能早自勇退於急流之中，如錢若水者幾人哉？是則其志雖太果，其去雖太遽，而其視貪冒而敗者，賢不肖相懸矣。余故以爲恬退，古人所重，而不可易而言者也。”(鄭來僑, 『忘機齋記』,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49면)

34) “莫學兄迂拙，非農即工商。”(鄭來僑, 『示兩弟』, 앞의 책, 같은 곳)

35) 김시민(金時敏, 1681~1747)에게 써준 『송동포김공출재낭천서』(送東圃金公出宰狼川序), 가난 속의 즐거움에 관해 말한 『초당상량문』(草堂上樑文), 신정하의 제사 때 올린 글인 『제서암신공문』(祭恕菴申公文)이 그런 작품들이다. 『증진사송용회서』(贈進士宋用晦序)와 『용존와기』(用存窩記) 역시 가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난 작품들로, 이 작품들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한 작품이다.³⁶⁾ 이 글은 총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1단락을 본다.

나의 벗 송용晦(宋用晦)는 충청도의 선비이다. 젊은 시절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서 또 속대(屬對)와 정문(程文)을 전공한 뒤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했는데 누차 과거에 낙방하고 지금은 우두커니 백발의 유생이 되었다. 집이 서원(西原: 청주-인용자)에 있는데 농사지을 땅 한 치도 없어서 처자식이 굶주리며 떨고 있고 자신도 여러 읍 사이를 떠돌고 있으니 그 궁핍이 심하구나!³⁷⁾

송필위의 전도유망하던 과거와 낙망한 현재가 대조를 이룬다. 지금의 송필위는 관직 진출에 실패했고 노쇠했으며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처지가 ‘궁핍[窮]’이라는 말로 집약된다. 다음은 제2단락이다.

다만 일찍이 시 짓기를 좋아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몰두하였다. 마음속에 근심이 되거나 꼭 막혀 불평한 모든 일을 하나같이 드러내어 읊은 것이 쌓여서 여러 권이 되었는데, 왕왕 당말(唐末)의 음조가 있어서 청초하여 읊을 만했다. 용회가 30년간 머리를 숙이고 공부했는데, 끝내 얻은 것이 이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만약 용회가 젊었을 때 집안사람들을 힘써 지휘하여 재산을 모으면서 농사와 장사에 힘쓰기를 시를 공부하듯 했다면 서원의 부가옹(富家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찌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여 밤낮으로 급급해서 처자식으로 하여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는가? 이것이 과연 용회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참으로 즐거워할 만한 것이 그 가운데 있기에 문일까?³⁸⁾

36) 송필위는 송규연(宋奎淵)의 손자이며 송상우(宋相愚)의 아들로, 부친이 서자였기에 그 자신도 서족(庶族)이 되었다. 송규연의 동생이 송규렴(宋奎濂)이며 송규렴의 아들이 송상기이다. 정내교는 은진 송씨 가문과 교류하면서 송필위와도 친분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인다. 송필위의 가계는 인제대학교 디지털 족보도서관에 등재된 『恩津宋氏族譜』 卷之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필위는 1714년(숙종 40)에 생원시에 합격했는데, 그를 ‘진사’라 칭한 것은 생원이라도 진사라 부르는 것이 당대의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송준호, 『이조생원진사시의 연구』, 국회도서관, 1970, 40~41면 참조.

37) “吾友宋用晦，湖土之秀也。少年成進士，有聲泮庠中。既又攻屬對程文，上京師赴舉，屢展公車，今兀然白首生矣。家在西原，無寸土可耕，妻子飢寒，身亦羈遊郡邑間，其窮甚矣!”(鄭來僑, 『贈進士宋用晦序』,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47면)

38) “願嘗嗜爲詩，晚益專工。凡有憂患牢騷不平於中者，一發之言詠而積成卷編，邈邈有唐季音調，清楚可誦。用晦三十年屈首鉛筆，畢竟所得止此而已耶! 使用晦及其壯少，力治家人生產，若農商

“다만”[顧]이라는 말로 내용의 전환을 알리면서 ‘시’(詩)라는 새로운 화제를 제시한다. “나이가 들어서 는 더욱 몰두하였다”라는 말을 통해, 송필위가 시를 지음으로써 가난의 괴로움을 달랬다는 점이 암시된다. 이 점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더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이렇게 송필위의 처지를 소묘한 다음, 제1단락의 화제인 ‘궁’과 제2단락의 화제인 ‘시’를 포괄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송필위는 왜 생계를 방기하고 시에 몰두했는가?’라는 문제이다. “용회가 30년간 머리를 숙이고 공부했는데, 끝내 얻은 것이 이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이하의 네 문장은 이 질문을 다양한 각도로 변주하면서 반복한다. 그러면서 송필위가 시에 몰두했기에 궁핍해졌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진다. 또 한편으로는 송필위에 대한 힐책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실은 송필위의 행동을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상응한다.

그러다 마지막 문장에서 전환이 일어난다. 이 문장에서 ‘송필위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가 밝혀진다. 그 이유는 바로 시 짓기에서 얻는 ‘즐거움’이다. 여기서 비로소, 송필위를 힐책하는 것처럼 보이던 저자가 실은 그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암시된다.

용회는 일찍이 내가 시를 배워서 궁해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 내게 궁함을 면할 기술을 권했다. 그런데 지금 마침내 자신이 그것을 위해 심히 애를 써서 끝내 나와 함께 궁함으로 귀결되었으니, 어째서인가? 손을 트지 않게 해주는 약은 혹 빨래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혹은 제후로 봉해지는 데 쓸 수도 있으니,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용회 또한 이 도(道)를 잘 써서 궁함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궁함을 싫어하여 면하기를 구하는 자들을 보면 실로 각자 자기 기술이 있는데, 시 짓는 솜씨가 좋아서 궁함을 면한 사람만은 들어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용회가 시도(詩道)에 깊이 나아가는 것은 단지 궁함을 면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궁함을 더하기에 꼭 맞을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용회가 나를 안타깝게 여긴 이유로 인해 도리어 용회를 안타깝게 여긴다. 용회는 어떻게 생각할까?³⁹⁾

之業, 如攻詩之爲, 則雖爲西原富家翁, 可也. 奈何舍彼取此, 日夜汲汲, 使妻子困於飢寒至此哉? 是果於用晦何益? 豈誠有可樂者存乎其中歟?”(鄭來僑, 『贈進士宋用晦序』, 앞의 책, 같은 곳)

39) “用晦嘗問余學詩而窮, 勸余所以免窮之術, 而今乃自爲之甚力, 卒與余同歸于窮, 何哉? 不龜手之藥, 或以泔澗, 或用之封侯, 在所用之如何爾. 用晦其亦善用此道而有可以免窮者否? 余不可知

제3단락에서는 ‘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송필위는 ‘나’에게 ‘궁함을 면할 기술’을 권하고도 정작 자신은 시에만 몰두했다. 그 이유는 제2단락에서 밝혀진 대로 시 짓기의 ‘즐거움’ 때문이다. 즉 생업에 종사하자니 가난을 면할 수 있지만 즐거움이 없고, 시를 짓자니 즐거움은 있지만 가난 때문에 괴롭다. ‘나’는 송필위와 처지가 같다. ‘나’는 지난날 시에 몰두하느라 궁하게 지냈다. 송필위에게 “궁함을 면할 기술”을 익히기를 권유받았으나 그 권유를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궁하게 지내고 있다. 송필위 역시 ‘나’의 전철을 밟았다. “용회가 나를 안타깝게 여긴 이유” 즉 시에 몰두하느라 곤궁하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도리어 그를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은 둘 사이의 공통성을 집약한다.

이처럼 『증진사송용회서』는 가난한 시인들이 겪는 ‘시와 생계의 갈등’을 문제 삼는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송필위에게 초점을 맞추되 정내교 자신의 심사 또한 점진적으로 드러내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제2단락에서 암시되듯, 정내교는 송필위가 가난을 감수하며 시에 몰두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드문 인물이다. 그리고 제3단락에서 비로소 명시적으로 드러나듯, 송필위와 똑같은 성격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이 글에서는 구양수(歐陽脩) 이래로 널리 퍼진 ‘시능궁인론’(詩能窮人論)의 영향이 확인된다.⁴⁰⁾ 홍세태 등 중인 시인들은 시능궁인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바,⁴¹⁾ 정내교 또한 이런 관심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내교는 단순히 가난의 고통이 아니라, 시와 생계 사이의 양자택일을 요구받으나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를 부각했다. 시능궁인론을 계승하되, 가난한 시인들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가난에 대한 정내교의 인식은 당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세대를 보면서 정내교는 자신을 ‘부를 추구하는 세대와 어긋난 사람’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남들은 모두

也. 雖然, 余見世之醜窮而求免焉者, 固自有其術, 而獨未聞工於詩而免於窮者. 則用晦之進於詩道, 非惟不能免窮, 適足以益其窮矣. 吾故以用晦之問余者, 反爲用晦而問焉. 用晦以爲如何?” (鄭來僑, 『贈進士宋用晦序』, 앞의 책, 같은 곳)

40) 시능궁인론에 관해서는 우용순, 『朝鮮中期 ‘詩窮而後工’論의 문학사적 의미』, 『순천향인문과학논총』 1,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59~71면 참조.

41) 채환중, 앞의 논문, 246~251면 참조.

답 올 때 일어나 / 오직 이익 챙기기에 열심이건만 / 나 홀로 등불 밝히고 / 시서(詩書)에만 애쓰란다”⁴²⁾라는 시구(詩句)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그 뿐 아니라, 신임옥사와 그 이후의 정국 변동을 겪으면서 정내교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런 자기인식과 역사적 경험은 노자의 사상을 수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부를 좇는 세태와 어긋난 사람’이라는 자기인식은 물욕을 경계하고 소박한 삶을 중시하는 노자의 사상과 친연성이 있었다. 최상층의 몰락을 목격한 경험 역시 과욕(寡慾)이 최고의 보신책이라는 노자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도록 했다. 43세 때인 1723년에 지은 시에 ‘현와(玄窩)라는 자호(自號)가 보이는 점을 통해, 정내교가 그전부터 노자의 사상에 경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³⁾ 이런 경향은 만년으로 가면서 더욱 심화되었다.⁴⁴⁾

지금부터 살펴볼 『용존와기』는 ‘모’(某)에게 써 준 기문(記文)으로, 정내교의 개인적 배경, 18세기 전반기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노자의 사상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제1단락을 보자.

명이주와 콩잎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적게 할 수 있는데도 꼭 기름진 음식을 맛보려 하고, 바른길이 걸음을 편안하게 하고 넘어짐이 없게 할 수 있는데도 꼭 지름길로 가려고 하니, 끝내 생명을 해치고 몸을 망치는 것은 모두 이런 까닭이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사람의 근심은 공교함보다 심한 것이 없으며 오직 즐박함이 몸을 편안히 하는 오묘한 도이다. 『노자』에서는 “큰 공교함은 즐박해 보인다”라고 했고 주염계(周濂溪)는 『졸부』(拙賦)를 지어 “공교한 사람은 수고롭고 즐박한 사람은 편안하다”라고 했다. 나는 일찍이 이 두 말을 깊이 음미

42) “衆皆雞鳴起，惟利是孳孽。我獨焚膏油，屹屹在書詩。”(鄭來僑, 『示兩弟』, 앞의 책, 같은 곳)

43) “中有一居士，玄窩以扁名。玄窩者誰子？昌山 鄭潤卿。”(鄭來僑, 『懷川路程篇』, 『浣巖集』 권1, 韓國文集叢刊 197, 500면)

44) 이 점은 59세 때인 1739년에 지은 두 수의 시에서 확인된다. 이 시들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고담준론은 직하(稷下) 아니어도 되고 / 헛된 명성은 초가집보다 못하네. / 노자가 현묘한 비결을 남겼으니 / 내가 지금 비전(秘傳)의 술법을 얻었네.”(高譚非稷下，虛譽愧虛前。柱史存玄訣，吾今得秘傳。)[鄭來僑, 『讀放翁詩，有浮生過六十，百念已頽然之句。開歲發春，吾季亦六十矣。以今觀昔，烏得無感懷？遂力疾次韻，奉示同志』, 『浣巖集』 권2, 韓國文集叢刊 197, 528면; “만년에 『도덕경』을 읽고서 / 가슴 속이 탁 트였네. / 몸을 보전하는 데에는 현묘한 술법이 있고 / 다투지 않는 것이 곧 귀함이라네.”(晚讀五千言，曠然豁襟次。衛生有妙術，不爭方是貴。)[鄭來僑, 『讀老子。次高隱子和陶詩韻』, 같은 책, 같은 곳] 이 시들의 번역은 최연희, 앞의 논문, 21면 및 55면을 참조하되 일부 수정한 것이다.

해 보고 배우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⁴⁵⁾

일반적인 기문이 작성 경위에 관한 기술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이 글은 논설로 시작한다. 보통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즉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지름길” 즉 편법을 취하려 한다. 이런 행태를 집약하는 말이 ‘공교함’ [巧]이다. 그리고 ‘공교함’과 대비를 이루는 말이 ‘졸박함’[拙]이다. ‘졸박함’은 ‘공교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만, 실은 “몸을 편안히 하는 요묘한 도”이다. 기문 작성 경위에 관한 기술은 제2단락에야 나온다.

나의 벗 모군(某君) 모(某)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여러 대를 경기도에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온 집안이 골짜기로 들어가 대박산(大樸山) 아래 은거하고 있다. 그사이에 군중(郡中)에서 나와 만나서 평소처럼 옛날에 함께 즐거이 지내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사는 곳에 편액을 붙여 달라고 청했다. 나는 두보(杜甫)의 “졸박함으로 내 도를 보존하네”라는 구절을 취하여 큰 글씨로 편액을 쓰기를 ‘용존와(用存窩)’라고 했다. 모는 기뻐하며 “이것이 내 뜻일세”라고 하고는 또 내게 기문을 지어 달라고 청했다.⁴⁶⁾

인용문은 제1단락에서 전개된 논설의 연장선에 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경기도에서 사는 삶’은 ‘공교함’에 해당하고 ‘골짜기로 들어가 은거하는 삶’은 ‘졸박함’에 해당한다. ‘대박산’이라는 지명(地名)은 ‘공교함’을 버리고 ‘졸박함’을 택한 ‘모’의 성품과 호응하고, ‘졸박함’이라는 글 전체의 화제와도 호응하며, 제1단락의 인용구들과도 호응한다. 그리고 두보의 시구 및 거기서 따온 와명(窩名)과도 호응한다. 단순한 사실의 기술을 넘어 ‘모’의 삶의 여러 요소를 ‘졸’이라는 말로 집약한 것이다. 이 기술은 앞으로도 ‘졸박함’을 잘 지키라는 당부로 이어진다.

45) “藜藿可以寧神少病而必嗜膏腴，正路可以安步無蹶而必之捷徑，卒至於傷生敗身者皆是。由是觀之，人之患莫甚於巧，而惟拙爲安身之妙道也。『老子』曰：‘大巧若拙。’周濂溪著『拙賦』曰：‘巧者勞，拙者逸。’余嘗深味此二言，欲學而未能也。”(鄭來僑, 『用存窩記』,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48면)

46) “吾友某君某出自名家，家坵甸象世，一朝盡室入峽，隱居大樸山之下。間與余還郡中，叙舊相歡若平生，因求扁其所居。余取老杜‘用拙存吾道’之句，大書扁之曰用存窩。某欣然曰：‘是吾志也。’又請余爲記。”(위의 글, 위의 책, 같은 곳)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가 봉디 재주를 품고 있고 문장에 능하니 과거에 응시하여 녹을 구하면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도리어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로 들어가 친척을 버리고 적막을 달갑게 여기며 변화함을 사양하고 담박함을 편안히 여기니 공교함을 싫어하고 졸박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 모가 참으로 능히 졸박함으로써 도를 보존하여 마음에 근심이 없다면 만나는 일마다 편안하여 노년에 이르면 더욱 독실해져서 텅 비고 담박한 중에 늘 지극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수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세상에서 가장 궁하고 졸박한 사람이다. 모가 내게 밭 한 켠을 나누어주어 함께 농사를 짓는다면 장차 졸박함과 졸박함이 서로 만나서 도가 외롭지 않을 듯하니, 더욱 즐겁지 않겠는가? 모는 도모해 보시게.⁴⁷⁾ (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증진사송용회서』의 제3단락과 마찬가지로, 인용문에서도 정내교는 글을 증정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되 글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다. 정내교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궁하고 졸박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졸박함’은 ‘궁함’ 즉 물질적인 가난을 포함하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제1단락을 분석하면서 말했듯, ‘졸박함’은 ‘공교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만 사실 ‘공교함’보다 좋은 삶의 방식이다. 즉 졸박함은 풍요와 명리보다 더 나은 가치이면서, 소수만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이처럼 『용존와기』에서 정내교는 가난에 ‘세속에서 추구하는 부와 성공보다 나은 가치’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 부여에는 양면이 있다. 정내교가 가난했던 것은 자질이 나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분 차별 때문이다. 그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⁴⁸⁾ 가난에 ‘졸박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면, 결과적으

47) “余以謂某困抱才能文，應舉干祿，何求不得，而顧乃深入於萬山窮峽之中，棄親戚而甘寂寞，謝紛華而安淡泊，苟非惡巧而好拙者，能如是乎? (...) 某誠能用拙存道而無悶於心，隨遇而安，至老而彌篤，則冲虛恬淡之中，常有至樂者存，可以全生矣，可以盡年矣。若余亦世之最窮拙者，某能分我一廛，與之耦耕，則將見拙與拙相遇而道其不孤矣，豈不尤可樂哉? 某其圖之。”(鄭來僑, 『用存窩記』, 앞의 책, 같은 곳)

48) 신분 차별에 대한 정내교의 생각은 1731년작인 『분국음』(盆菊吟, 『완암집』 권1)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시에서 정내교는 “모든 풀이 같은 성품을 타고났으니 / 조화(造化)는 좋게 하거나 덩겁 함이 없네. / 다만 농인 처지가 달라 / 마침내 귀천의 구별이 생겨난 게지”(百草同一

로 가난의 사회적 원인을 따져 묻는 데에 무관심해지기 쉽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순응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가난에 대한 정내교의 의미 부여는 욕망을 추구하는 세태와 비판적 거리를 둔 덕분에 가능했다. 역으로 가난에 이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세태와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기도 했다.

중인문학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정내교의 자기인식은 특징적이다. 자신이 가난하고 차별받는 처지라는 인식은 이전 중인 작가들의 시는 물론이고 산문에서도 나타난다.⁴⁹⁾ 홍세태의 「자경문」(自警文)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된 정조는 “나는 평생 한스럽게 여긴 것이 있으니, 남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만 나를 안다는 것이다”⁵⁰⁾라는 자탄(自嘆)이다. 정내교는 「증진사송용회서」에서 했듯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뇌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모색했다. 앞서 분석했듯, 이 모색은 사상적 탐색을 수반했으며 세태에 대한 비판적 반응의 성격을 지닌다. 이런 의미에서 정내교는 이전의 중인 작가들보다 좀 더 지적이며 현실비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보는 정내교의 시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내교는 가난한 중인으로서 겪은 ‘시와 생계의 갈등’을 산문으로 표현했다. 그 자신의 가난,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세태 그리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내교가 노자의 사상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정내교는 가난에 ‘졸박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졸박함이 부와 성공보다 나은 가치라고 여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이런 자기인식은 신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 즉 여향인들을 보는 정내교의 시선에 관해 탐구한다.

性, 造化無冷熱, 直爲處勢異, 終令貴賤別)라고 읊었다. 이 시에 대한 해석으로는 채환중, 앞의 논문, 241면을 참조할 것.

49) 16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중인 시인들이 지은 시에 관해서는 강명관, 앞의 책, 225~259면을 참조할 것.

50) “余平生有所恨, 人所不知而已獨知之者.”(洪世泰, 「自警文」, 「柳下集」 권10, 韓國文集叢刊 167, 499면)

2. 여항인의 자수(自守)와 시여(施與) 조명

이 절에서는 정내교의 산문 중 여항인의 삶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을 살펴본다.⁵¹⁾ 이 작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여항인을 입전한 여섯 편의 전이다. 정내교의 전은 기존에도 많이 논의되었으므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본격적인 작품 분석을 시작하기로 한다.

선행연구의 논의는 정내교가 차별받는 신분의 일원이라는 의식에서 출발하여 자기 동류의 삶과 그들이 실현한 가치를 조명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기본 관점은 타당하다. 그러나 ‘정내교가 이 작품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오효부전』(吳孝婦傳)의 논찬(論贊) 중 “천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군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비해 항상 어렵고 더욱 귀하게 여길 만하”⁵²⁾라는 말이 정내교의 평등 지향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천성은 신분과 관계없이 같으므로, ‘하층민의 도덕적인 행위는 천성의 발로이다’라는 말은 곧 ‘인간의 도덕성은 신분과 무관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다.⁵³⁾ 그러나 이 말은 16세기 말 이래 하층민의 도덕적 행위를 소재로 삼은 글에서 대단히 흔하게 보인다.⁵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신분적 위계를 정당화하는 것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는 천성에 수양이 더해져야 도덕성이 획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대부는 수양, 즉 교육의 기회가 있

51) ‘자수’는 과거 문헌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킴’이라는 뜻으로 쓰던 말이다. 『김성기전』에서 정내교는 김성기가 신임옥사 이후 잔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며 가난하게 산 것을 두고 “이 어찌 지킴[守]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是豈無守而然哉?)라고 논평한 바 있다. ‘시여’는 과거 문헌에서 재화의 일방적인 양여(讓與)를 일컫던 말이다(강명관, 『이타와 시여』, 푸른역사, 2024, 6면 참조). 근래에 강명관 교수의 저서 『이타와 시여』에서 이 말을 중요한 개념어로 활용했다. 본고에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우선 ‘베푼’이나 ‘증여’에 비해 의미가 명확하다는 이점 때문이며, 아울러 선행연구를 계승한다는 취지에서이다.

52) 『오효부전』의 논찬 전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余見自古以身徇義者多出於士君子之流, 而庶人則絕無而僅有. 非其出於天性不能, 故視君子常難而尤可貴焉. 今吳氏女特露屋一愚婦耳, 未必知利義取舍之辨, 而能自不顧生, 不念二女, 急其神主而蹈烈火以死, 此豈出於勉強者? 蓋其天性然而所爲自適於義耳, 雖古之伯姬, 曹娥者, 何以過哉?”(鄭來僑, 『吳孝婦傳』,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53면)

53) 정내교의 전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은 다음 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원철, 앞의 논문, 101~103면; 김성희, 앞의 논문, 21~22면; 이상진, 앞의 논문, 144면; 이형주, 앞의 논문, 65면; 손병국, 앞의 논문, 455~456면; 최연희, 앞의 논문, 66면; 정병호, 앞의 논문, 229~231면.

54) 조하늘, 『조선후기 하층민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45~46면 참조.

으므로 하층민에 비해 도덕성을 갖기 유리하다.

사실 정내교의 특징은 평등 지향보다는, 여항인의 자수(自守)와 시여(施與)를 향한 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전에 국한하지 않고 산문 전반을 살펴 보면 이 점이 더 명확해진다. 여항인의 삶을 소재로 삼은 정내교의 산문에서는 두 가지 관심이 두드러진다.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견지하며 산 여항인에 대한 존중이다. 의원 이수기(李壽祺)에게 써준 발문과 홍세대를 위해 쓴 묘지명 등에서 이런 관심이 확인된다.⁵⁵⁾ 전 중에서는 「김성기전」이 그러하다. 다른 하나는 여항인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여를 향한 관심이다. 역관 이여방(李汝芳)의 계첩(契帖)에 써준 서문과 김만취(金萬叢)를 위해 쓴 묘지명에 이런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⁵⁶⁾ 역관들을 위해 쓴 묘문에서도 묘주(墓主)가 재물을 잘 베푸는 사람이었음을 반드시 언급하고 있다.⁵⁷⁾ 「취매전」(翠梅傳)과 「임준원전」에도 이런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⁵⁸⁾

이 중 본고에서 자세히 분석할 작품은 「이재연 애사」(李在淵哀辭)와 「임준원전」이다. 이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내교가 여항인들을 어떤 시각에서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수’와 ‘시여’를 향한 관심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드러날 것이다.

「이재연 애사」는 중인 신분의 처사 이몽리(李夢鯉, 자字 재연在淵)를 애도하며 쓴 글이다. 이 작품의 서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락은 이몽리가 십여 세 때 자신을 찾아와 글을 배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55) 『완암집』 권4에 수록된 「李景叔銘心編跋」과 「滄浪洪公墓誌銘」을 참조할 것.

56) 『완암집』 권4에 수록된 「李汝芳契帖序」와 「金澤甫墓誌銘」을 참조할 것.

57) “於兄弟衣食百用，與共無常主。所交遊，雖酸醜異趣，各得其歡。其自日本 若馬島還，橐裝動千金，輒分與昆弟以及知舊貧者，至自窘乏而無憾焉，其所養有素，亦可知已。”(鄭來僑, 『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女公墓碣銘』,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69면); “公之遠祖墓在黔巖, 久廢香火, 爲置田完山, 以供歲一之祀, 而又以其餘濟其貧族。富人李某嘗賣田於公, 後聞其失所流離, 還其田而不問, 人以東坡事比之。”(鄭來僑, 『資憲大夫知中樞府事金公墓表』, 같은 책, 570면); “爲人慳悌慈諒, 居家事親盡其道, 友兄弟以及宗族, 貧不能昏嫁喪葬者, 咸以爲歸。嘗以五百金貸與其所親好某甲, 其人慚其久不能償, 絕不往來。公就見之曰: ‘子不我卽, 豈以債金故耶?’ 焚其券不問。”(鄭來僑, 『贈戶曹參判兼五衛都總府副總管行同知中樞府事吳公墓表』, 같은 책, 572면) ‘女公’은 현덕윤(玄德潤, 1676~1737), ‘金公’은 김경문(金慶門, 1673~1737), ‘吳公’은 오상량(吳相良, 1653~1718)을 가리킨다.

58) 「백태의전」(白太醫傳)은 재물의 증여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지만, 입전 대상인 백광현(白光鉉)이 병자의 귀환을 가리지 않고 정성껏 진료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여항인의 이타적 행위를 조맹했다는 점에서는 「취매전」 및 「임준원전」과 같다고 하겠다.

그때의 단정한 품행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제1단락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고 제2단락과 제3단락을 본다.

재연은 집이 몹시 가난해서 책상은 낡고 자리는 헤어졌으며 채소도 충분히 먹을 수 없었는데도 늘 평온했다. 마을 아이들을 모아 가르친 것이 모두 수십 명이었는 데 모두 근신하여 예의와 겸양으로써 서로 신칙(申飭)했다. 마을에 싸움을 일삼는 자가 있었는데 감히 그 문에 가까이 가지 않으며 “이학군자(理學君子)의 거처이다”라고 말했다.

작년에 대신당시의 좌의정 송인명(宋寅明·인용자)이 그 행실을 훌륭하게 여겨 조정에 아뢰어서 곡식을 내려 구휼해 주었고 지금의 상공 조공(趙公: 조현명(趙顯命·인용자)이 친거해 이문학관(吏文學官)으로 삼으려 했는데 군이 고사하려 하기에 내가 옛 의리를 들어 출사를 권하였으나 미처 비지(批旨)가 내려져 관직을 받기 전에 재연이 죽었다. 한낱 목숨은 재연의 고상한 뜻에 연연할 바가 아니니 출사하고 출사하지 못함은 참으로 말할 것도 없다. 돌아보건대 지금 우리 무리 중에 능히 재연처럼 뜻을 독실히 하고 배움을 추구하는 자가 몇이나 될까? 아아, 애석하다! 재연은 당시에 39세였고 자녀는 없었다.⁵⁹⁾

이몽리는 몹시 가난하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직을 얻을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의리에 따라 출처(出處)를 결정한다. 즉 이몽리는 물질과 관직에 대한 욕망을 좇지 않고 진리와 의리를 추구한 인물로 표상된다. 그의 공부는 여향인들을 교육하고 감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자기수양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된 것이다.

애사는 서문과 일관되게 ‘경제적·신분적 악조건 속에서도 고결함을 견지한 사람’이라는 이몽리 상(像)을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서문에 없는 요소들을 담고 있다.

아아! 재연이여! 너는 어찌 경박한 시대에 태어나서 더러운 곳에 잠겼는가?

59) “在澗家貧甚，弊床疏席，菜茹不充而常晏如也。聚閭井子弟教誨之凡數十輩，皆斤斤以禮讓相飭。里有鬪鬪者不敢近其門曰：‘理學君子居也。’往年，大臣高其行白于朝，以廩粟周之，今相國趙公辟爲吏文學官。君欲力辭，余引古義勸其出仕，及批下付職而在澗死矣。一命非在澗之雅志，則其出與不出，固不可論也。顧今吾輩中有能篤志向學如在澗者幾人？嗚呼惜哉！在澗時年三十九，無子女。”(鄭來僑, 『李在澗哀辭』, 『浣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64면)

오막집에 살며 해진 옷을 입으니, 술지게미와 겨도 마음껏 먹지 못했구나.
 읽은 것이 성인의 경전이니, 기른 것은 그 마음어구나.
 못사람이 하지 못하는데 홀로 하니
 신전(神電)이 지목하여 기다렸구나.
 이미 가난해 굶주려서 곤액에 처했는데
 또 재앙을 만나 요절했구나.⁶⁰⁾

이몽리의 낮은 신분이 “더러운 곳”이라는 말을 통해 표현된다. 가난은 오막집, 해진 옷 그리고 “술지게미와 겨도 마음껏 먹지 못했구나”라는 말을 통해 표현된다. 이렇게 가난하고 한미한 처지가 묘사된 데 이어 경전을 읽고 마음을 수양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서문의 이몽리 상(像)을 좀 더 압축적으로 다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몽리의 삶에 대해 어떤 태도로 말하는가, 그리고 이몽리의 삶에서 어떤 면을 주로 조명하는가는 약간 다르다. 서문의 어조가 비교적 건조한 것과 달리 애사의 어조는 감정이 풍부하다. 그리고 서문에서 이몽리의 불우함보다는 훌륭함에 비중을 두었다면, 애사에서는 훌륭함보다 불우함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몽리의 생애에 대한 논평이 사회비판으로 확대된다.

저 고기를 먹고 관직을 차지한 사람들은
 무슨 따를 만한 덕이 있는가?
 이 이치가 망망하니 누가 능히 하늘에 따질까?
 아아, 재연이여!
 차라리 매미처럼 허물을 벗고 참됨으로 돌아가시게.⁶¹⁾

“저 고기를 먹고 관직을 차지한 사람들”, 즉 상층 사대부들이 거론된다. 이들의 ‘고기를 먹고 관직을 차지하는’ 생활은 이몽리의 가난하고 미천한 삶과 대조를 이룬다. ‘따를 만한 덕이 없는’ 모습은 경전을 읽고 마음을 수

60) “吁嗟在淵兮，爾何澆離之生而與淥之潛？室蝸而衣鶉兮，而糟糠又不厭。所讀者聖經兮，所養者其心。衆不爲而獨爲兮，神電日以待之。既窮餓而隕其生兮，又椽喪而短期。”(鄭來僑, 『李在淵哀辭』, 앞의 책, 같은 곳)

61) “彼嚙肥而銀艾兮，顧何德之能遵？此理茫茫兮，孰可詰於穹旻？吁嗟在淵兮！無寧蟬蛻而歸真。”(위의 글, 위의 책, 같은 곳)

양하는 이몽리의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이들은 인품 면에서는 이몽리보다 못하지만, 훨씬 안락한 생활과 높은 지위를 누린다. 이 상황이 “이 이치가 망망”하다는 말로 집약된다. 정내교는 세상을, 사람을 덕이 아닌 신분에 의해 대우하는 부조리한 곳으로 인식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내교가 할 수 있는 말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라’라는 것뿐이다.

이처럼 서문과 애사의 상호보완에 따라 이몽리는 신분적·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고결함을 견지한 인물인 동시에 신분 차별의 피해자로 표상된다. 이몽리의 가난과 낮은 신분 속에서 그의 고결함이 더욱 부각되고, 이런 인물을 불우하게 죽게 한 사회적 불의도 더욱 강조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몽리의 자기수양이 ‘여향인들에 대한 교육과 감화’라는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런 형상화는 일견 정내교가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라는 사대부적 규범을 내면화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말 그러한가? 여향인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정내교의 형상화에는 어떤 사회적·정치적 지향이 담겨 있는가?

『임준원전』을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임준원전』의 입전의식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밝힌 듯하다.⁶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구성과 형식이 주제를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먼저 작품의 단락을 제시하고 중요한 대목만 인용해 가면서 분석한다.

- ① 서울 남북의 민속
- ② 임준원의 아전 생활과 사직
- ③ 시회(詩會)와 동료 시인들에 대한 시어
- ④ 친척과 친구들의 혼례와 장례를 위한 시어
- ⑤ 모르는 여인의 빛을 대신 상환해 준 일
- ⑥ 최기남의 장례를 위해 관(棺)을 마련해 준 일
- ⑦ 임준원의 죽음과 사람들의 애도
- ⑧ 임준원의 시에 대한 논평과 『해동유주』(海東遺珠)의 발간 경위

62) 박희병, 앞의 논문, 1992b, 305~306면; 윤재민, 앞의 책, 174면; 정병호, 앞의 논문, 213면; 진재교, 『관계의 사유와 이웃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66, 한국고전문학회, 2024, 127면.

제1단락은 전부 인용한다.

서울의 민속은 남북이 서로 다르다. 종로 이남부터 목멱산(木覓山) 아래까지는 남부이다. 상인과 부자가 많아 재리(財利)를 좋아하고 인색하며 안마(鞍馬)와 주택의 호사스러움을 서로 겨룬다. 백련봉부터 서쪽으로 필운대에 이르기까지는 북부이다. 대부분 빈민과 놀고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왕왕 입협(入協)의 무리가 있어 의기로 교유(交遊)되 베풀기를 좋아하고 말한 것을 꼭 지키며 재난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고 우환이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준다. 시인과 문사들이 계절을 따라 서로 좇아서 숲과 샘, 구름과 달을 따라 노니는 즐거움을 다하며, 곧잘 시편의 많음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다투니 또한 풍속의 기운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⁶³⁾

짧은 ‘서울 지리지’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이 인정기술(人定記述)로 시작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대목은 서울 여향인 사회에 대한 기록의 구실도 하고, 뒤에 펼쳐질 이야기의 공간적 무대를 제시하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기능은 작자의 시각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재리를 추구하는 상인과 부자의 세계’와 ‘시어를 추구하는 입협과 시인의 세계’라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고 그중 가치 있는 것은 후자라는 생각이다.

제2단락은 제3~6단락의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임준원은 내수사 서리가 되어 수천 금을 모은 뒤 “내게는 이미 족하다! 어찌 여기에 골몰할 만하겠는가?”라고 말하고는 “즉시 사직하고 집에서 지내며 문사(文史)로써 스스로 즐겼”다.⁶⁴⁾ 이 단락은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준다. 첫째, 임준원의 시여가 내수사 서리로서 쌓은 부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임준원의 시여가 ‘이미 족함’을 아는 욕심 없는 성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셋째, 임준원이 학문적 소양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작품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제5단락과 호응하는바,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⁶⁵⁾

63) “京城民俗有南北之異。鍾街以南至木覓下，是南部也。多商賈富人，好利纖織，以鞍馬第宅侈靡相高。從白蓮以西至彌雲，是北部也。類皆貧戶游食之民，然往往有任俠之徒意氣交游，好施予，已然諾，救菑恤患。詩人文士時節相追逐，窟林泉雲月之樂，動有篇什誇多鬪麗，豈亦有風氣使然者歟?”(鄭來僑, 『林俊元傳』, 『沈巖集』 권4, 韓國文集叢刊 197, 554면)

64) “勤幹解事務，得任用司中，以起富家費累千。乃歎曰：‘於吾已足矣！寧可沒沒於此？’即謝仕家居，以文史自娛。”(위의 글, 위의 책, 같은 곳)

제3~6단락은 임준원의 시여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임준원의 시여가 미치는 대상은 유찬홍(庾纘洪)과 홍세태 등 선배 격의 문사들과 문우들(제3단락), 친척과 친구들(제4단락), 친분이 없는 빈민(제5단락)까지 여항 세계 내에서 상하와 친소(親疏)를 포괄한다. 제3단락에서 제6단락까지 가면서 임준원에게 도움을 받는 대상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으로, 가까운 사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확장된다.

임준원의 시여에 관해 서술하는 과정에서 그의 자질들 역시 하나씩 드러난다. 제3단락에서 임준원은 유찬홍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좋은 술을 마음껏 제공한다.⁶⁶⁾ 도움받는 사람의 기호(嗜好)를 고려하는 것이다. 시회를 경제적으로 후원하면서 “오래되어도 게을리하지 않”⁶⁷⁾는 것은 임준원의 한결같음을 보여준다. 제4단락은 임준원이 “의(義)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즐겨 항상 미치지 못할 듯 여겼”고 그의 친척이나 친구로서 가난하여 혼례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준원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⁶⁸⁾ 임준원이 간혹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시여를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제5단락은 임준원의 자질을 한층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준원이 일찍이 육조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관리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고 악소년 한 명이 뒤를 따라가며 욕을 하고 있었다. 여인은 몹시 슬프게

65) 김경희, 앞의 논문, 2016b, 20~22면에서는 임준원이 내수사 서리직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점 때문에 아전이 되기를 꺼리다가 결국 현실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준원전』에 내수사의 부정부패 이야기는 전혀 없다. 임준원이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으며 사무를 잘 이해하여 내수사에서 신임을 얻어 부를 일으켜서 가산이 수천 금이 되었다”라는 말을 볼 때 정내교의 의도가 내수사의 부정부패를 암시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하기는 더욱 어렵다. 본문에서 인용한 임준원의 말들은 임준원이 독서인의 삶을 아전의 삶보다 가치 있고 즐겁게 여겼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임준원이 아전이 되기를 꺼린 이유는 자신의 가치와 기호(嗜好)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며, 내수사의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해석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66) “其徒有庾公纘洪, 洪公世泰, 崔大立, 崔承太, 金忠烈, 金富賢諸人. (….) 然庾公嗜酒, 能日飲數斗, 洪公母老而妻無以爲養. 俊元館庾公, 爲置旨酒以盡其量, 而數以財周洪公, 使不至匱乏.”(鄭來僑, 『林俊元傳』, 앞의 책, 555면)

67) “每遇良辰美景, 招呼諸人, 指某地爲期, 俊元爲主, 辦酒肴而隨之, 輒賦詩酣飲, 極驩而罷. 以是爲常, 久而不倦.”(위의 글, 위의 책, 같은 곳)

68) “俊元既饒於財而好義樂施, 常如不及. 其親戚與知舊之貧不能婚嫁喪葬者, 必以俊元爲歸.”(위의 글, 위의 책, 같은 곳)

통곡하고 있었다. 준원이 그 까닭을 묻고 꾸짖어 말했다.

“하찮은 빛 때문에 여인을 이토록 욕보여도 되는가?”

즉시 빛을 상환하고 채권을 찢고는 그냥 가버렸다. 여인이 따라가면서 물었다.

“공은 누구십니까? 맥이 어디십니까?”

자소(子昭, 임준원의 자字·인용자)는 말했다.

“『예기』에 남녀는 다른 길로 다닌다고 되어 있소. 어찌 내 성명을 물으시오?”

여인이 간청해도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이때부터 자소의 명성이 민간에 진동했으며, 그 풍모를 흠모하여 알고 지내고자 하는 사람의 발자국이 문에 줄을 이었다.⁶⁹⁾

임준원은 채권자와 관리에게 맞서 약자를 보호한다. 임준원의 항의가 설득력을 지니는 것은 단순히 금력(金力) 때문이 아니다. ‘빛 때문에 여인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 때문이다. 그리고 여인을 돕고도 보답을 극구 거절하는데, 이때 『예기』를 인용하며 남녀유별을 따진다. 이처럼 제5단락에 이르러 임준원은 의롭고 인심 좋은 면모를 넘어 엄정하고 고상한 면모를 보여준다. 이런 면모에 상응하게 호칭도 이름인 ‘준원’에서 자(字)인 ‘자소’로 바뀐다. 『예기』 인용에서 드러나듯 이런 면모의 배경에는 경전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 사실은 제2단락에서 제시된, 임준원이 사직한 뒤 문사(文史)로써 스스로 즐겼다는 사실과 호응한다.

제6단락은 임준원이 최기남의 죽음을 대비해 관재(棺材)를 준비해 둔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렀으며, “이에 사람들이 더욱 자소가 의리가 높고 앞일을 미리 헤아릴 줄 아는 데 탄복”⁷⁰⁾했다는 내용이다. 이 일화는 앞일을 예측하는 사려를 보여준다. 경전에 대한 지식과 상통하면서도 한층 비범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준원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도 간과되지 않는다. 제4단

69) “俊元嘗步過六曹街上，有一女子被官人驅去，一惡少背隨話之，女號哭甚哀。俊元問其故，叱曰：‘可以微債辱女人至此耶？’立償之，裂其券遂去。女隨而問曰：‘公何如人？家安在？’子昭曰：‘禮』，男女異路。何必問我姓名？’強之終不告。自是子昭名震閭閻，慕風願識者跡交其門。”(鄭來僑, 『林俊元傳』, 앞의 책, 같은 곳)

70) “龜谷 崔公病沒，喪不能舉。其門徒會治喪，無可以棺相助者。時子昭從使臣入燕，座客歎曰：‘嗟乎！使林子昭在此，豈使先生死而無棺？’言未既，門外有人運棺材來者。問之，子昭人也。蓋子昭行時，念公老病，戒家人者也。於是人益服子昭高義能慮事也。”(위의 글, 위의 책, 같은 곳)

락에는 임준원이 친척과 친구들의 혼사와 장례에 늘 도움을 주었으므로 “그가 평소에 집에 있거나 나다닐 때 그를 보살피며 안부를 묻고 공대하기를 아들처럼 하는 사람이 또한 수십 명이었다”⁷¹⁾라는 말이 있다. 임준원이 죽은 뒤 “어느 늙은 과부가 스스로 찾아와서 바느질을 돕겠다고 청하고 옷이 완성되자 곧 떠났는데, 옛날 거리에 있던 여인이었”⁷²⁾다는 일화는 한층 함의가 풍부하다. 이 일화는 여인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옛 은혜를 잊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가난하고 늙었으며 남편을 여의기까지 한 어려운 처지인데도 보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도 알려준다.

요컨대 『임준원전』에서 임준원의 시어는 단순히 동정심이나 의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욕심 없는 삶의 자세 및 독서를 통한 지식 축적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표상된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시어의 대상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으로, 친분 있는 사람에서 친분 없는 사람으로 확장된다. 시어의 바탕에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점도 점차 드러난다. 임준원 사후의 일화는 임준원에게 도움받은 사람이 지니고 있던 고마운 마음을 효과적이고 감동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구성은 임준원의 시어가 얼마나 광범위했고, 그 기저에 있는 소신이 얼마나 분명했으며, 또 그가 얼마나 많은 애정과 존경을 받았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앞서 한 질문을 상기해 보자. 여항인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정내교의 형상화에는 어떤 사회적·정치적 지향이 담겨 있는가? 첫째, 임준원의 시어는 상인 및 부자들의 탐욕과 대비를 이룬다. 둘째, 임준원의 시어는 계급성을 띤다. 임준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중 양반은 한 명도 없다. 임준원의 시어 대상은 전부 중인 이하의 신분이면서, 역관부터 빈민까지 다양한 처지의 중하층 인물들을 포괄한다.⁷³⁾ 셋째, 임준원의 시어는 문화적·

71) “俊元既饒於財，而好義樂施常如不及。其親戚與知舊之貧不能婚嫁喪葬者，必以俊元爲歸。故其平居往來候視執恭如子弟者，亦數十人。”(鄭來僑, 『林俊元傳』, 앞의 책, 같은 곳)

72) “及子昭歿，弔者如哭其至親，其常所仰賴者則曰：‘吾何以爲生?’有老寡女自來請助針線，至成服乃去，蓋街上女也。”(위의 글, 위의 책, 같은 곳)

73) 『임준원전』에는 임준원이 후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유찬홍, 홍세태, 최대립(崔大立), 최승태(崔承太), 김충렬(金忠烈), 김부현(金富賢)이 제시되어 있다. 유찬홍, 홍세태, 최대립은 모두 역관 출신이다. 김부현은 최승태의 사위인데, 이들은 둘 다 경야전이었다. 유찬홍의 출신에 관해서는 강명관, 앞의 책, 241면 참조. 홍세태에 관해서는 같은 책, 146면 참조. 최승태, 최기남, 김부현에 관해서는 같은 책, 142면 참조.

정치적인 성격도 지닌다. 임준원의 시회 후원은 ‘중인층에 대한 문화적 후원’이라는 함의를 지닌다.⁷⁴⁾ 관리에 대한 반항에는 ‘피지배층을 착취하는 지배층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⁷⁵⁾

이처럼 정내교가 그린 ‘임준원 상(像)’에는 여항인이 여항인을 도와야 한다는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초기적 형태의 계급의식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단, 사치스럽게 사는 부자와 상인이 부조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계급의식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단순한 신분보다는 ‘경제적·신분적 취약성’이라는 복합적인 조건이다.

‘계급의식’이라고 할 만한 의식은 이전의 중인 문인들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정내교는 계급 내부의 관계를 포착하는 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다. 흥세태는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입전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표출하기도 했다.⁷⁶⁾ 정내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부조를 조명했다. 정내교의 계급의식은 심정적인 동류의식(同類意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항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신분 차별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차별의 자각에서 연대의 모색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정내교 산문의 사회적·문화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여항인을 보는 정내교의 시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내교의 시선은 가난한 중인이라는 정내교의 개인적 배경, 그리고 당대에 일어나고 있

74) 강명관은 임준원이 “여항문단의 물적 패턴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 강명관, 앞의 책, 145면.

75) 임준원의 행동에 정치적 저항의 성격이 있다는 점은 정내교의 「임준원전」을, 그것을 개작한 남유용(南有容)의 「임준원전」과 비교할 때 한층 분명해진다. 남유용의 「임준원전」에는 여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관리가 아니라 ‘한 젊은이[一少年]’로 되어 있다. 즉 정내교가 보기에 임준원이 관리에게 대항했다는 사실은 임준원이 지닌 ‘여항인의 보호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배층의 일원인 남유용이 보기에 그 사실은 임준원의 긍정적인 면모를 퇴색시키는 것이었다.

76) 흥세태의 「유술부전」(庾述夫傳)과 「김영철전」(金英哲傳)이 중하층 인물을 입전하고 있다. 이 중 「유술부전」은 흥세태와 함께 낙사(落社)에서 활동한 유관홍(庾繼洪, 1628~1697)을 입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의 기행(奇行)을 묘사함으로써 신분으로 인한 좌절감을 암시하며, 평결부에서는 그가 재주와 지혜를 지니고도 빈천하게 살아갔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유술부전」에 관해서는 김용남, 「柳下 洪世泰의 「傳」 研究」, 『개신어문연구』 14, 개신어문학회, 1997, 245~250면을 참조할 것.

던 욕망의 증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정내교는 경제적·신분적 악조건 속에서도 정신적 가치를 견지한 여향인을 조명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사회적 실천, 즉 경제적·신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조로 확장되는 것으로 형상화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보는 정내교의 시선은 물론, 여향인을 보는 정내교의 시선 역시 신분 차별과 가난의 경험을 기저로 삼아 형성되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배층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지배층을 보는 정내교의 시선에 대해 알아본다.

3. 지배층의 탐욕 비판

지배층을 보는 정내교의 시선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내교가 활동한 시기는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증가하던 시대이자, 부유함과 높은 지위 때문에 도리어 위험에 빠지는 일이 드물지 않던 시대였다. 이런 세태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지배층이다. 정내교는 스스로는 가난한 중인이면서도 벌벌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가까운 외부인’이었기에, 정내교는 당대의 최상층이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도 그들과 비판적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이 점은 벼슬에 욕심을 내다가 패망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나, 부귀한 관리 집안의 자식들이 명리와 안락만 좇는다는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⁷⁷⁾ 이 절에서는 지배층의 욕망에 관해 논평한 글 중 가장 상세한 「잡설」(雜說)을 분석하기로 한다.

「잡설」은 5개의 짧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락은 사회문제에 대한 논평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선행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되었다.⁷⁸⁾ 다만 본격적인 분석 대상이 아닌 주변 자료로 활용되다 보니 ‘정내교의 현실비판의식을 보여주는 글’이라는 일반적인 해설에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본고는 ‘정내교가 지배층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유의하여 좀 더 예각화된

77) 벼슬에 욕심을 내다가 패망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은 「이지정기」(二知亭記)와 「망기제기」(忘機齋記)에 보인다. 제자 홍낙성에게 써 준 「항제기」(恒齋記)에서는 “자안(子安: 홍낙성의 자字-인용자)은 부귀한 관리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어디 가든 명성과 공리 아님이 없고 기거와 음식이 어디 가든 편안하고 배부르지 않음이 없다”(子安生長於富貴仕宦之家, 目觀耳聞, 無往而非聲利; 起居飲食, 無適而非安飽)라고 했다.

78) 장원철, 앞의 논문, 100~101면; 이상진, 앞의 논문, 114~118면 및 128~129면; 강명관, 앞의 논문, 261~263면; 손병국, 앞의 논문, 445면 및 453~454면; 윤지훈, 앞의 논문, 269면.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단락은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이다. 먼저 제1단락을 본다.

어느 술 좋아하는 자가 외출해서 그 동류(同類)를 좇아 만취하여, 저녁때 귀가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 길에 누워서 자기 방이라고 생각한다. 미친 듯 고함치고 구토하면서 혼미하게 제멋대로 굴어, 바람과 이슬이 몸에 엄습하고 도둑이 옆에서 엿보며 수레와 말, 행인이 장차 들이받고 짓밟게 될 줄도 모른다. 지나가는 사람은 괴이하게 생각하고 웃으며 이상한 물건을 본 듯 여긴다. 아야! 이것이 어찌 유독 이상하게 여길 일인가? 지금 어느 관리가 포의(布衣)에서부터 출사하여 벼슬을 해서 현달하기에 이르는데, 당대를 구제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려는 심모원려(深謀遠慮)는 일찍이 있는 적이 없고 오직 끊임없이 나아가기만을 구하고 끝없이 얻기만을 탐내어, 원망이 쌓여서 화가 이르는 데 미친다. 남들은 위태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는데 자기는 방자하게 만족하고 있으니 심하다, 그 취함이여! 아야! 술 마신 자의 취함은 때가 되면 깨지만 관리의 취함은 화가 닥쳐도 깨는 날이 없으니 슬프다!79)

이 단락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거론되었다. “‘덕이 부족한 정치인’, ‘군자연하는 소인배 관리’들을 술취한 사람들과 비유하고 있다”⁸⁰⁾라는 해석도 있고, “군자연하면서 소인배나 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을 모두 술취한 사람들이라고 비웃고 있다”⁸¹⁾라는 해석도 있었다. 그런데 비판의 초점이 정말 ‘소인배’라는 데 있을까? ‘술 마신 자의 취함’과 ‘관리의 취함’의 유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객이 화를 입는 것은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관리가 화를 입는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끊임없이 나아가기만을 구하고 끝없이 얻기만을 탐내어”서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남의 몫을 빼앗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원망이 쌓”인다. 그러나 관리는 자기 처지가 위태

79) “有嗜於酒者出而從其徒，大醉，暮歸迷家，臥於塗而認爲室，狂叫呌哇，昏然自肆，不知風露之襲體，偷兒之旁伺，車馬人徒之將舐觸躑躅也。過者怪而笑之，若見異焉。噫！是豈獨爲可異也哉？今有官人者，自其釋褐而仕，仕而至於顯，未嘗有深謀長慮以救時利國，而惟求進之不已，貪得之無厭，及其怨之積而禍之至也。人莫不危之，而已則方傲然自得焉，甚矣其醉也！噫！酒者之醉，有時而醒；官者之醉，甦迫而醒無日，哀哉！”(鄭來僑, 『雜說』, 앞의 책, 같은 곳)

80) 이상진, 앞의 논문, 115면.

81) 손병국, 앞의 논문, 454면.

로운 줄 모르고 “방자하게 만족”한다.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비판의 초점이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상실하면 자멸을 초래한다.

다음으로는 제1단락과 마찬가지로 ‘탐욕에 빠진 관리의 말로’를 화제로 삼고 있는 제3단락을 검토한다. 제2단락은 이후에 살펴볼 것이다. 제3단락은 제1단락과 화제가 같지만, 피지배층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버리며 청렴을 숭상하고 탐욕을 억제하는 것은 천하의 공론이다. 궁(窮)과 통(通), 화(禍)와 복(福)은 조물주의 오묘한 권한이다. 지금 이 권한을 훔쳐 사사로이 휘둘러서, 공론이 틀렸다고 하는데 자기만 유쾌하게 여기고, 곧은 사람을 몰리치고 굽은 사람을 나아오게 하며, 청렴을 멀리하고 탐욕을 숭상하며, 통해야 할 일을 궁하게 하고 화가 닥쳐야 할 일에 복이 오게 하여, 심지어 창고와 문지기까지 함께 빼앗기는 데에 이르는 것은 모두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에 조물주가 명명(冥冥)한 가운데 팔짱을 낀 채 몰래 노하여 어리석으면서도 신령한 자들이 하늘을 대신해서, 이를 들은 자들이 둘러싸고 꾸짖어, 하루아침에 해기(駭機)가 발하면 화를 측량할 수 없다. 아아! 저 사람들이 사사로운 은혜를 심어 장차 훗날에 보답을 받아먹으려 하지만 보답은 받아 먹지 못하고 화를 받아먹게 되니 이른바 “스스로 지은 재앙은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조화(造化)에 권한을 들리고 중인(衆人)의 공론을 듣는다.⁸²⁾

‘어리석으면서도 신령한 자들’은 백성을 가리킨다.⁸³⁾ 이들이 하늘을 대신한다는 말은 ‘민심은 곧 천심(天心)’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를 반영한다. ‘이

82) “舉直而措枉，尚廉而抑貪，天下之公論也。窮與通，禍與福，造物之妙權也。今有竊是權而自私者，公論之拂而惟己之逞，退直而進枉，疏廉而崇貪，窮其可通而福其可禍，甚至管庫門卒之與奪，皆從我出。於是造物者袖手陰怒於冥冥之中而愚而神代天，而是聽者環而詈之，一朝駭機發而蹈禍不測。噫！彼之樹私恩，將以食異日之報，然而報之不食而禍之食，所謂自作孽不可違者非耶？是故善爲人之國者，歸權於造化，聽公於與人。”(鄭來僑, 『雜說』, 앞의 책, 같은 곳)

83) 이 말은 『당육선공주의』(唐陸宣公奏議)에서 유래한다. 해당 대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심경호·김우정 역, 『역주 당육선공주의』 1, 전통문화연구회, 2019, 187면에서 인용하되 현도를 표점으로 바꾸었다. “前志所謂衆庶者至愚而神，蓋以蚩蚩之徒，或昏或鄙，此其似於愚也，然而上之得失，靡不辨；上之好惡，靡不知；上之所秘，靡不傳；上之所爲，靡不效，此其類於神也。”

를 들은 자들'은 맥락상 백성의 불만이나 소원(訴冤)을 접수한 다른 관리들을 말할 것이다.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 감사(監査)나 탄핵을 맡은 관리의 귀에 들어가면 탐관오리는 몰락하기 마련이다. 백성이 어리석으면서도 신령하다든가 천심을 대리한다는 인식은 새롭지 않다. 그러나 탐관오리가 백성들의 분노를 사 몰락하는 과정을 단순한 당위론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관찰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배층의 탐욕은 자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를 왜곡한다. 다음은 제2단락이다.

자기를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거주하면서 즐기는 것은, 욕망을 가진 부류라면 똑같이 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오직 도를 가진 자만이 그렇지 않다. 선왕의 다스림은 도를 가진 자로 하여금 욕망을 가진 자를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이로움이 아래에 있고 위에 있지 않아, 백성들이 모두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거주하면서 즐겼다. 후대에는 대부분 욕망을 가진 자가 욕망을 가진 자를 다스리므로 욕망과 욕망이 서로 다투어서 힘을 가진 자가 늘 이긴다. 그러므로 이로움이 위로 돌아가서 음식을 호사스럽게 하고 수레를 편안하게 하며 집을 우뚝하게 하고, 백성들은 애초부터 기한(飢寒)에 시달리며 삶을 편안히 여기지 못한다. 아아! 후대가 삼대(三代)로 돌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⁸⁴⁾

지배층이 욕망을 가지면 재화를 놓고 피지배층과 갈등하게 된다. 이 갈등에서는 지배층이 항상 이긴다. 지배층이 지닌 '힘'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인용문을 근거로 삼아, 이전의 중인 시인들이 신분적 불평등으로 인한 자아의 갈등을 중요한 소재로 삼으면서도 그 불평등의 본질에 접근하려 시도하지 않은 것과 달리 정내교는 사회적 불평등의 본질을 간파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인용문에는 “현실 정치는 유교 이념이 표방한 도덕적 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구현되며, 이기적 욕망으로 충만한 지배층의 피지배층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로서 현

84) “不以利己爲心者，可以利及於物。夫美衣飽食安居而嬉者，有欲之類同有是心，惟有道者不然。先王之治，使有道治有欲，故利在下而不在上，民皆美衣飽食安居而嬉。後世類多以有欲治有欲，故欲與欲相爭而有力者常勝。故利歸於上而珍其味澤其車甲其第，民始悴於饑寒而不安其生矣。噫！後世之所以不復三代者，其以是歟！”(鄭來僑, 『雜說』, 앞의 책, 같은 곳)

상화”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런 인식은 “재래의 유가적 정치 이념의 허구성을 전복시키는 논리 위에서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⁸⁵⁾

그런데 정내교의 생각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도를 지닌 자가 욕망을 지닌 자를 다스리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라는 말은, 명확한 전거(典據)는 찾을 수 없으나 유가 정치사상에 입각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선왕의 정치에 비해 후대의 정치가 타락했다는 것 또한 과거 문헌에서 흔히 나타나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정내교가 유가적 정치 이념의 허구성을 전복했다는 평가는 다소 과하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가 지배층의 이기적 욕망에 의한 착취로 나타난다는 해석은 적확하다고 여겨진다. 정내교의 독특한 점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내교는 정치가 타락한 근본적 원인이 지배층의 욕망에 있다고 본다. 지배층은 욕망뿐 아니라 힘까지 갖고 있으므로 백성을 착취하게 된다. 이런 인식은 홍세태의 시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관리의 교활함이나 관부(官府)의 무관심 탓으로 돌린 것⁸⁶⁾에 비해 좀 더 근본적이며 구조적이다. 이 점은 정내교가 산문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산문은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분석에 유리한 형식이다. 정내교는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기에, 시만으로 만족하는 대신 산문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잡설」 제1단락부터 제3단락까지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 의하면, 지배층의 탐욕은 그들 개인의 차원에서는 남의 원망을 사거나 백성의 분노를 입어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까지 왜곡시켜, 통치가 힘에 의한 착취로 전락하게 한다.

이상의 분석에 입각해, 정내교가 이전의 증인 문인들에 비해 갖는 차별점

85) 강명관, 앞의 책, 261~263면.

86) 홍세태는 군정(軍政)의 폐단을 노래한 「초정행」(抄丁行)에서 “교활한 아전놈 농간 쳐서 돈을 긁어들이니 / 동쪽 마을 무사할 때 서쪽 마을 놀란다오”(猾吏操權坐索錢, 東村無事西村驚)라고 읊었다. 관서에서 주전(鑄錢)을 낭발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고발한 「철거우행」(鐵車牛行)에서는 “동래 상인은 날로 부자 되고 동전은 날로 싸지는데 / 구부(九府)에서 한 번이라도 백성 고통 구한 적 있나?”(萊商日富錢日賤, 九府何曾救人困?)라고 읊었다. 「초정행」의 번역은 강명관, 앞의 책, 256면을 따랐으며, 「철거우행」의 번역은 김형술, 앞의 논문, 175면을 따랐다.

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평을 보충할 수 있다. 이전의 중인 문인들도 착취당하는 백성을 소재로 삼은 시를 지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원인과 기제를 분석한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반면 정내교는 백성이 착취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지배층의 탐욕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배층의 탐욕이 폐해를 초래하는 기제를 개인적, 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하려 한다. 이 점에서, 『잡설』에 나타난 정내교의 인식은 이전 중인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인식보다 좀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이다.

그렇다면 정내교는 이런 실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달리 말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착취가 없는 대안적 질서를 상상하기도 했는가?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잡설』에 의하면 지배층 인물들이 보신하는 길은 탐욕을 버리고 도덕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도 전망되고 있지 않다. “아아! 술 마신 자의 취함은 때가 되면 깨지만 관리의 취함은 화가 닥쳐도 깨는 날이 없으니 슬프다!”라는 말에는 오히려 그런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심정이 담겨 있다. 제2단락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던 ‘삼대’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후대’의 차이는 지배층의 도덕적 자질에 있다. 이 논리를 따른다면, 유교적 이상정치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배층이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정내교는 “아아! 후대가 삼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라고 탄식할 뿐이다.

이런 한계는 정내교가 벌열과 맺은 관계를 통해 일정 부분 설명될 수 있다. 『잡설』 제2단락에서 정내교는 ‘욕망을 가진 자가 욕망을 가진 자를 다스리는 타락한 통치’를 ‘도를 가진 자가 욕망을 가진 자를 다스리는 이상적 통치’와 대비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상황의 해결책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 지배층을 ‘도를 가진 자’로 환골탈태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 지배층에게서 ‘힘’을 빼앗는 것이다. 즉 지배층이라도 위정자의 자질이 부족하면 기득권을 박탈당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 해결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내교는 평생 벌열 곁에서 지냈으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해결책은 어떨까? 정내교가 그런 상상을 했지만, 그런 상상이 담긴 글이 남지 않았을 뿐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내교는 별열 덕분에 시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다. 별열이 기득권을 상실하는 것은 곧 정내교 자신이 기반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정내교가 부도덕한 지배층을 비판하되 그들의 기득권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지 않은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배층에 대한 태도에 있어 정내교와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이언진이다. 제2장에서 언급했듯, 이언진은 별열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힘입어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하지도 않았다. 이언진이 지배층에게 비판적인 것을 넘어 반체제적 성향을 띤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학적 배경뿐 아니라 별열과의 관계에 기인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배층을 보는 정내교의 시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내교의 시선은 당대에 일어나고 있던 ‘욕망의 증대’, 불안정한 정치 상황, ‘가난한 중인’이라는 개인적 배경 그리고 별열과의 긴밀한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정내교는 지배층의 탐욕이 그들의 자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를 왜곡시켜 통치가 힘에 의한 착취로 전락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런 시각은 과거의 중인 문인들에 비해 한층 구조적이고 근본적이다. 그러나 정내교는 착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는 별열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발한 체제 순응적 태도에서 기인한 면이 있다.

IV. 남은 과제

이상으로 정내교의 산문 전반을 분석하여 그의 문학적 지향을 고찰했다. 신분만이 아니라, 그의 경제적 배경, 교유 그리고 18세기 전반기의 사회적·정치적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내교의 산문에 접근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드러난 정내교 산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내교는 가난한 중인이면서 별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대 서울에서는 부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증대되는 동시에 지배층의 극심한 부침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기 자신, 여향인 그리고 지배층을 보는 정내교의

시선은 이런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정내교는 자신이 겪은 ‘시와 생계의 갈등’을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난에 ‘졸박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부와 성공보다 나은 가치로 제시했다. 경제적·신분적 악조건 속에서도 정신적 가치를 견지한 여항인을 조명했으며, 이런 자세가 경제적·신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조로 확장되는 양상을 포착했다. 또한 지배층의 탐욕이 그들의 자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피지배층에 대한 착취를 유발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처럼 정내교의 산문은 가난한 중인의 입장에서 ‘욕망의 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내교는 사회 구조의 개선이나 변혁을 구상하거나 상상한 작가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데 머무르지도 않았다. 정내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위에서 ‘욕망의 절제’라는 대안적인 가치를 제시했으며, 이 점에 정내교 산문의 사회적·문학적 의의가 있다.

중인문학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정내교는 자신의 불우함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가난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 중하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조를 형상화했다. 그리고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넘어, 착취의 근본적 원인이 지배층의 탐욕에 있다고 파악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기제에 대해 분석했다. 요컨대 정내교는 현실을 재현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현실적 문제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적 가치를 제시했다.

본고는 두 가지 과제를 남긴다. 첫째는 중인문학 혹은 여항문학 연구 전반과 관련된 과제이다. 여항문화는 조선후기 서울의 상업 발달과 관련하여 사치스럽고 유흥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⁸⁷⁾ 이 견해는 물론 타당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내교처럼 이런 시대적 추이에 반하는 인물도 있다. 더구나 정내교의 지향은 단순한 시대착오가 아니며,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대응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중인문학 혹은 여항문학을 논할 때는 그 공통성과 더불어, 각 작가의 개인적·

87)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159~188면.

시대적 배경에서 기인한 차이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정내교의 시와 전에 대한 재해석 문제이다. 기존에는 중인이라는 신분과 정내교의 작품을 단선적으로 연관 짓는 경향이 없지 않았던 듯하다. 본고를 통해, 정내교의 작품을 ‘신분’이라는 단일한 요인으로 환원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연구된 작품들을 이런 전제 위에서 재해석한다면 좀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정내교의 사회시에 관해 단순히 ‘자신이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처지였기에 백성들에게 공감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신분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처지에 시대적 경험이 결합하여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강화했고 그것이 사회시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일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鍾厚, 『本庵集』, 韓國文集叢刊 237~238.
李瀼, 『星湖全集』, 韓國文集叢刊 198~200.
申靖夏, 『恕菴集』, 韓國文集叢刊 197.
鄭來僑, 『浣巖集』, 韓國文集叢刊 197.
洪世泰, 『柳下集』, 韓國文集叢刊 167.

- 심경호·김우정 역, 『역주 당육선공주의』 1, 전통문화연구회, 2019.
허경진 편역, 『정내교·정민교 시선』, 평민사, 2024.

『恩津宋氏族譜』(인제대학교 디지털 족보도서관 등재, url: <https://genealogy.inje.ac.kr/>)

2. 단행본

- 강명관, 『이타와 시여』, 푸른역사, 2024.
_____,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비, 1997.
박희병, 『저항과 아만』, 돌베개, 2012.
송준호, 『이조생원진사시의 연구』, 국회도서관, 1970.
윤재민, 『조선후기 중인층 한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9.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차용주, 『한국위향문학작가연구』, 경인문화사, 2003.
허경진, 『조선위향문학사』, 태학사, 1997.

3. 논문

- 강명관, 『조선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1999, 159~188면.
강혜정, 『浣巖 鄭來僑 墓文의 特性 考察 - <金澤甫墓誌銘>과 <弟妻孺人邊氏墓誌>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74, 한민족어문학회, 2016, 319~349면.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의 생업과 도시 문화』,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2007, 165~214면.
김경희, 『"임준원전(林俊元傳)"에 나타난 정내교의 작가 의식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인문과학연구』 5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a, 5~31면.
- 김경희, 『정내교의 『김택보 만취 묘지명(金澤甫 萬取 墓誌銘)』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고찰』, 『감성연구』 1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b, 179~213면.
- 김성희, 『鄭來僑 詩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김용남, 『柳下 洪世泰의 『傳』 研究』, 『개신어문연구』 14, 개신어문학회, 1997, 241~267면.
- _____, 『중인 작가의 ‘전’에 나타난 인물유형』, 『개신어문연구』 17, 개신어문학회, 2000, 199~240면.
- 김형술, 『白巖詩壇의 眞詩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문성배, 『浣巖 鄭來僑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박현순,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2009, 89~145면.
- 박희병, 『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a, 338~437면.
- _____, 『조선후기 민간의 유희승상과 유희전의 성립』,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b, 276~337면.
- 손병국, 『浣巖 鄭來僑論』, 이종찬·김갑기 편, 『조선후기한시작가론』 1, 이희문화사, 1998, 433~458면.
- 우응순, 『朝鮮中期 ‘詩窮而後工’論의 문학사적 의미』, 『순천향인문과학논총』 1,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57~82면.
- 윤재민, 『중인(中人) ‘전(傳)’의 계층적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81~100면.
- 윤지훈, 『朝鮮後期 閭巷人의 教育活動과 그 成果: 浣巖 鄭來僑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21,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253~280면.
- 이경수, 『委巷藝術人의 形象化와 鄭來僑의 『傳』』, 姜漢永教授 古稀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韓國 관소리·古典文學研究』, 아세아문화사, 1983, 690~714면.
- 이상진, 『朝鮮後期 閭巷文學의 展開過程과 文藝意識: 天機論을 中心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서영, 『천기론(天機論)을 기반으로 한 중인문학』, 『인문사회과학논문집』 36,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5, 113~132면.
- 이형주, 『浣巖 鄭來僑의 文學 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장원철, 『朝鮮後期 文學思想의 展開와 天機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정병호, 『朝鮮後期 中人層의 傳에 나타난 人物形象과 그 意味』, 『한국학논집』 26,

-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9, 191~241면.
- 조지형, 「18세기 時調史의 흐름과 浣巖 鄭來僑의 위상」, 『민족문화연구』 6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423~452면.
- 조하늘, 「조선후기 하층민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진재교, 「관계의 사유와 이웃의 시선」, 『고전문학연구』 66, 한국고전문학회, 2024, 109~150면.
- 채환중, 「조선후기 위향문학과 사대부-신정하·신방과 홍세태·정내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15, 한국문학회, 1994, 229~263면.
- 최연희, 「鄭來僑 文學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A Study of the Prose of Wanam (浣巖) Jeong Nae-gyo (鄭來僑)
- The Age of Desire as Viewed by a Poor Jungin (中人) -

Cho, Ha-neul

This study is the first comprehensive attempt to analyze the entire body of prose by Jeong Nae-gyo (鄭來僑). It approaches his writings by considering both his personal background 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early 18th century. Although Jeong was an impoverished Jungin (中人), he maintained close ties with the elite ruling class. His era was marked by an intensifying desire for wealth and success, alongside significant upheaval among the ruling elite. Rather than merely depicting his personal conflict between poetry and livelihood, Jeong ascribed a positive meaning to poverty through the notion of jolbak (拙樸, unrefined simplicity), presenting it as a value superior to wealth and success. He shed light on the yeohangin (閭巷人, urban commoners) who upheld moral and intellectual values despite advers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depicting this self-definition as extending into a sense of moral responsibility toward those similarly disadvantaged. Moreover, his prose expresses a critical awareness that the greed of the ruling class not only led to their own downfall but also fueled the exploitation of the lower classes. Jeong's prose can thus be seen as a response from the perspective of a poor Jungin to an age dominated by desire. The significance of his prose lies in its critical engagement with the underlying causes of social problems, through which it identifies the restraint of desire as an alternative value.

Keywords : Jeong Nae-gyo (鄭來僑), Jungin (中人), 18th century, Desire for wealth and success, Jungin literature, Yeohang (閭巷) literature

접수일자: 2025. 3. 30.
심사기간: 2025. 4. 1.~2025. 5. 10.
계재결정: 2025. 5. 10.

